

東北亞地域의 域内分業의 進展과 韓日中 3國의 戰略的 通商協力方案

金 昌 男

I. 序 論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 (Globalization) 과 리저널리즘 (Regionalism) 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의 흐름이 상호 복잡하게 연관되면서 대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소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국민경제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경제로 편입되면서 자유무역체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적어도 금세기 중반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세계경제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많은 국가들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커다란 흐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ASEAN 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ASEAN 10개국은 일찍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제도적 통합을 실현시켰고, 한중일도 각국별로 대 세계지역이나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경제통합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의 무대가 지구규모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생산성의 상승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글로벌리제이션에 수반하여 인적, 물적 자원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50억 인구를 가진 신흥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그 경제규모를 5년간에 2배 이상으로 확대시켜 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인적, 물적 자원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의 자유화가 세계경제 전체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미국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하여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에 큰 동요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시장의 동요는 신용창출 기능에 영향을 주고 각국의 무역과 투자를 매개하는 관련 활동을 크게 위축 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지역 경제에 막대

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통화위기도 사실상 선진국 주도의 아시아 자본시장 자유화 조치에 따른 영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1995년까지만 하여도 매우 순조로우면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세계경제의 성장 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되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급속도로 성장한 태국의 호경기를 배경으로 한 재테크의 붐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며, 이것은 선진국의 잉여자금 특히 거대한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한 일본 금융자본이 방콕의 부동산산업에 대규모로 투자되면서 버블경제를 형성하였다. 이 버블경제는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업화에 수반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로 인한 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의 잠식과 그에 따른 태국의 불경기가 버블경제를 붕괴시키면서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했다. 태국의 경제위기는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의 증권시장을 붕괴시키면서 세계금융계의 일대 동요를 불러오게 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위기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고, 급기야는 한국의 금융외환 위기를 불러오게 했던 것이다.¹⁾

이렇게 하여 1996년 중반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 비쳐졌으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해 온 개발전략의 한계를 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자료가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해 온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이 정부주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개발전략의 한계로 지적되었고, IMF의 금융지원 조건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의 구조개혁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IMF가 제시한 구조개혁의 우등생으로 평가될 만큼 충실하게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위기를 상당히 극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국부의 해외유출과 다량실업의 발생, 중산층의 몰락 등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를 증폭시키는 계기도 되었다.²⁾

그러나 돌이켜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1960년대 초 또는 70년대 말까지 전통적인 생산방법 하에서 자급자족을 그 기본으로 하는 농경사회의 절대빈곤으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담당했던 정부 주도적 수출지향공업화라는 전략이야말로 1993년 세계은행에서의 제목에서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실적은 “기적”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까지 채택해 왔던 개발전략의 유효성 여부를 WTO 체제하에서 잉여자본의 이윤을 범세계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선진 경제대국의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평가절하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근대 자본주의 발달사는 물론 전통적인 경제발전 메커니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과 현상을 보았을 때, 이 같은 우려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은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개발경험을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등 소위 아시아신흥국 (ANIEs)이 도입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였고, 더구나 1980년대 초 이후 급속도로 전개된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ANIEs의 개발

모델의 도입을 통하여 눈부실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공업화에 있었으며, 그 공업화는 공업제품의 수출확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수출용 공업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와 중간재, 그리고 원·소재를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 조립한 최종 소비재를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방적 의존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ANIEs의 높은 소득수준을 반영한 수요확대와 기술적 보완성으로 인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교역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접투자의 활발한 이동에 의하여 동북아지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역내분업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더구나 가장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심도 있게 통합되면서 자국의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한중일 3개국에서 제도적 경제통합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역사적 문제나 영토적 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간의 경제통합은 장기적으로 당해 국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이 각종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3국간의 기술적 분업체제 분석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3국간 제도적 경제통합체로서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앞으로 상당기간의 현안과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역내분업체제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규명하고, 동북아 3국이 경제적 위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적 지역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3국간 통상협력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II. 東北亞地域의 經濟的 位相

1. 輸出 增加와 FTA 로 世界經濟 主導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의 성장 축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개방화에 따른 세계경제로의 편입으로 동북아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 지역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 지역 국가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모두 높은 경제성장이 급속한 공업화에 수반한 제품수출의 확대에 의하여 실현되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⁴⁾ 환언하면 자국의 요소부존상태에 부합하는 중·저급 기술의 공업제품 생산에 특화 함으로써 비교우위를 현재화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공업생산을 촉진시키는 순환과정에서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무역은 놀랄만한 속도로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의 작은 거인으로 부상한 한국과 대만, 홍콩은 1970

〈표 1〉 동북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의 추이 (%)

국명	국내총생산 증가율				수출증가율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9.6	9.6	7.2	5.2	23.5	12.2	13.8	12.2
일본	4.3	4.2	1.2	1.7	9.0	3.9	0.5	11.4
중국	5.2	9.4	9.4	9.9	8.7	11.5	13.3	26.0
대만	9.4	7.7	6.2	4.1	29.6	11.3	8.0	9.2
홍콩	9.2	6.9	3.6	5.3	9.7	4.4	9.8	9.1

주 : 1970년대는 1971~1980년간, 1980년대는 1981~1990년간, 1990년대는 1991~2000년간, 2000년대는 2001~2007년간 평균치임.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8*, Man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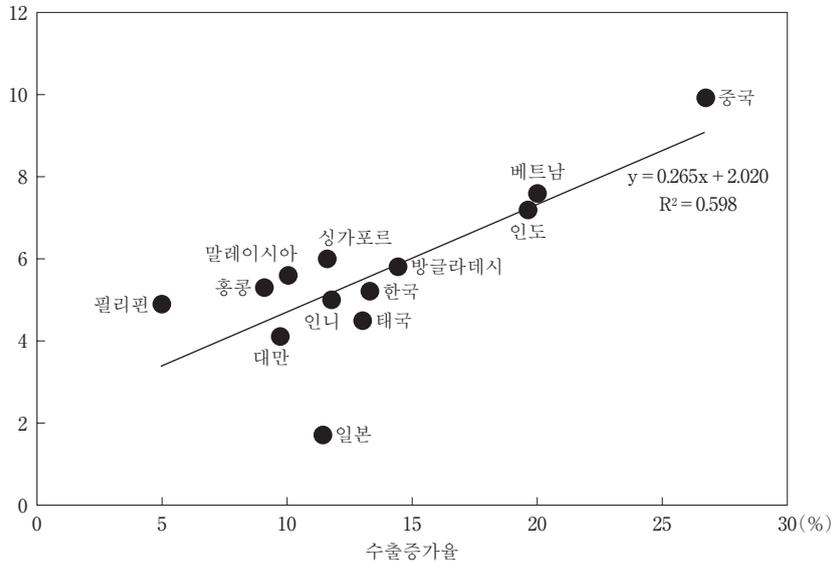
~8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7~10%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0년대 전반에도 6~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가맹국 평균이나 전 세계 평균을 2~3배 능가하는 것이었고, 개발도상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개방화 이후의 중국도 1980년대에 NIEs 제국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도 NIEs의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모두 급속한 공업화와 공업제품의 수출확대에 의하여 달성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공업 성장률은 1970년대에 중국의 두 배의 수준을 기록하였고, 선진국이나 전 세계 평균의 5배 이상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공업성장률이 70년대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의 성장률 수준으로 크게 접근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가속화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80년대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한국과 대만, 홍콩은 1970년대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연율 1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은 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국가들은 1970~90년대에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10%전후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고도성장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소재 등 생산재의 수입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은 2000~2007년까지 동아시아 13개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의 연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종축은 경제성장률을 그리고 횡축은 수출증가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의하면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우상향하는 추세선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결정계수 (R^2)가 0.598로 60%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세선에서 크게 괴리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0.796으로 크게 증가한다. 분명한 사실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간의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획득은 생산재에 대한 수입능력을 증가시켜서 공업 생

<그림 1>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8, Manila 를 이용하여 추계.

산 능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공업 생산의 확대와 수출을 증가시키는 “호순환적” 작용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일본에 버금가는 제3의 경제 대국화를 실현했다. 2009년도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2007년도 국민총소득은 31,209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GNI 526,210억 달러의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일본이 같은 시기에 48,13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대세계 비중은 9.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력 평가지수 (PPP) 로 조정된 GNI 는 중국 70,835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44,206억 달러로 역전되고 있다. 따라서 대 세계 비중도 중국은 10.9%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6.8%로 저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GNI 는 경상가격으로 95,091억 달러로서 대세계 비중은 18.1%를 기록하고, 구매력평가로는 21.0%에 해당하는 136,51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⁵⁾

이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북미 (미국, 캐나다) 지역이나 EU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PPP 로 측정된 GNI 는 북미지역 149,931억 달러로서 대세계 비중은 2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EU 의 Big 5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의 GNI 는 세계의 15.5%인 100,724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금세기 전반기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북미지역을 크게 능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수

출지향 공업화의 진전과 외국자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공업화율의 신장에 수반하여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공업제품 수출비율이 크게 신장되었고 이것이 고도경제성장을 촉진시킨 주요인이었다는 사실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⁶⁾

뿐만 아니라 공업제품수출의 신장 그 자체는 동아시아 국가에 돌풍처럼 불어 닥친 공업화의 물결과 아울러 중국의 개혁·개방에 힘입어 중국의 무진장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그리고 잠재적인 대규모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집중이 동북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도입된 국가는 중국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에서 발표하는 “세계투자보고서” 에 의하면 1980~2007년간에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 총액은 13,13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에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 132,771억 달러의 9%에 달하며, 발전도상국 전체 투자액 37,220억 달러의 35.5%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7,897억 달러로 동아시아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홍콩에 대한 투자액은 30%에 해당하는 3,932억 달러였다.⁷⁾ 특히 홍콩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대중국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관찰기간 중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1조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의 90%에 달하는 것으로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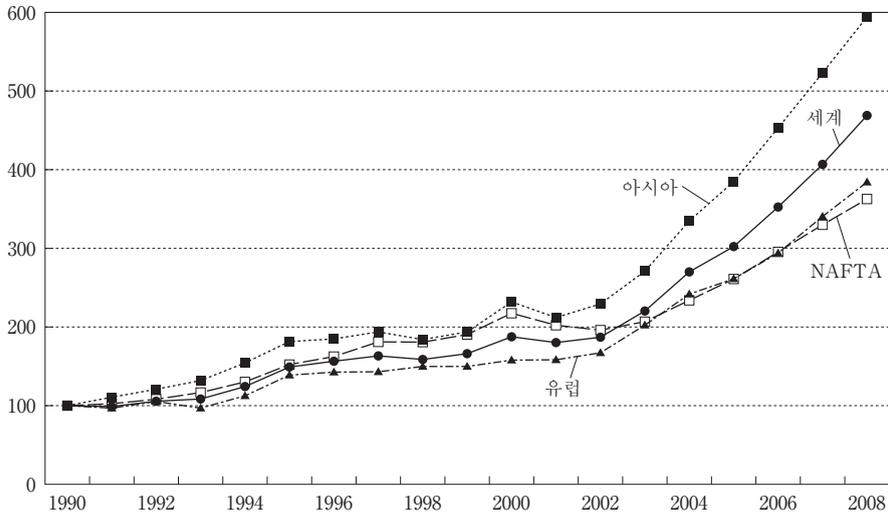
이 FDI는 대부분 제조업 부문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가공무역체제를 공고히 해 왔던 것이다. 2007년도 중국의 주요 제조업 부문별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외자계 기업의 비중을 보면 의복, 섬유, 가죽제품, 스포츠 용품 부문에서는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부문에서는 35~45%를, 통신기기 및 컴퓨터 부문에서는 84%를 기록하고 있다.⁸⁾

이 같이 방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의하여 중국은 해외로부터 풍부한 자본과 생산기술을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연안경제특구로 진입되면서 급속한 공업화와 수출을 확대시켜 나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그 성과물인 제품의 수출과정에서 경제성장은 촉진되었고, 동북아시아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기능적 통합을 실현하면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2. 中國主導 世界 輸出의 擴大

<그림 2>는 세계 3대 경제권의 대세계 수출증가 추이를 199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세계의 총수출지수는 1990년대 초 이후 확실한 증가추세를 보인 다음 2002년부터 가속적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지역,

<그림 2> 주요 경제권의 대세계 수출추이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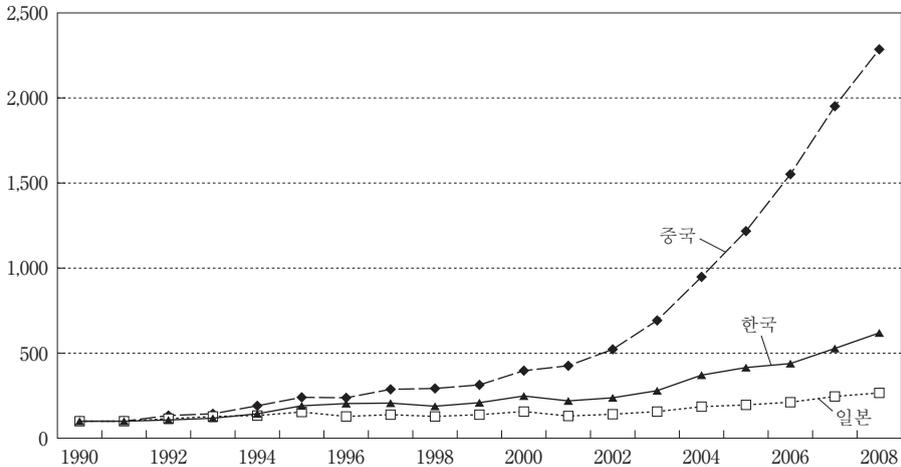
자료 : WTO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추계한 것임 (<http://www.state.wto.org/statistical program>)

NAFTA, 유럽지역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아시아지역의 지수상승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지역의 지수는 1990년 100에서 출발하여 2001년에는 20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배증했으나, 2002년부터 가속적인 양상을 보여 2008년에는 59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유럽과 NAFTA 지역의 수출증가지수는 각각 383과 365를 기록한데 비하여 세계의 수출 증가지수는 이것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467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계의 수출 증가는 아시아지역이 견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대외무역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의 수출증가지수를 계산해 본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단연 중국의 수출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수출의 신장속도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990년에 비하여 22배 이상 증가한 2,276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이 한국도 비교적 꾸준히 증가했으나 관찰기간 중 대략 6.2배 증가했으며, 일본은 2.7배 정도의 신장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수출을 증가시킨 이유는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유세계로의 수출장벽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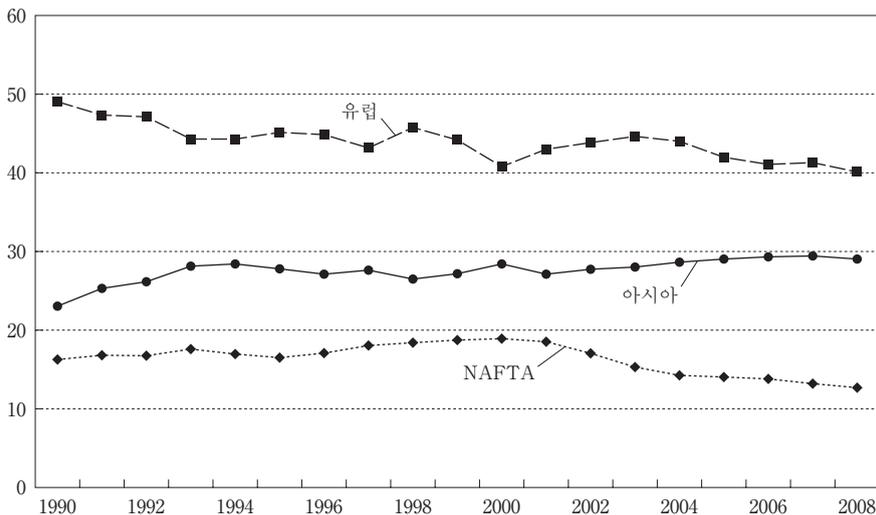
이처럼 두 개의 그림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계의 수출증가는 아시아지역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기여는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세계 수출총액은 1990년에 620억 달러에서 2000년 2,492억 달러를 거쳐 2008년에는 14,284억 달러로 관찰 기간 중 무려 23배나 증가하였다. 세계 최대의 수출국가인 독일이 같은 기간에 4,211억 달러에서 5,518억 달러를 거쳐 14,652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3.5배의 증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그림 3> 한중일 3개국의 대세계 수출증가 추이 (1990=100)



자료 : WTO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추계한 것임 (<http://www.state.wto.org/statistical program>)

<그림 4> 주요 경제권의 대세계 수출비중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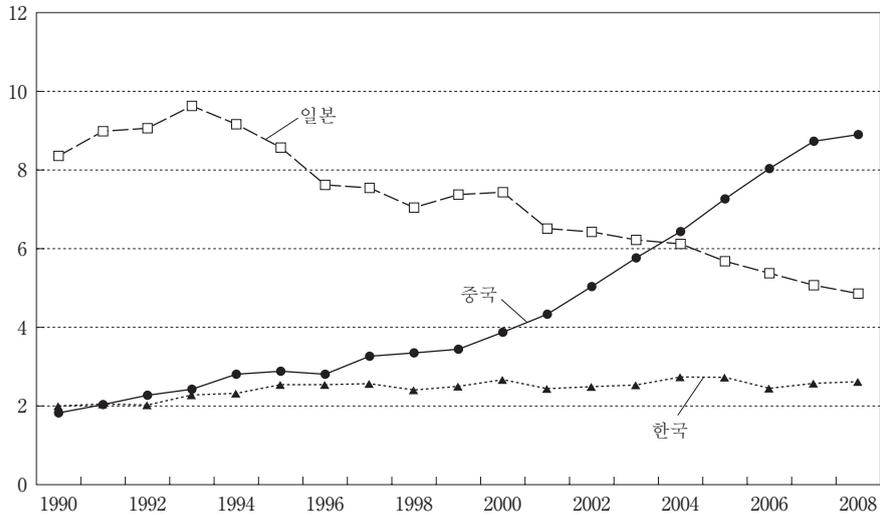


자료 : WTO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추계한 것임 (<http://www.state.wto.org/statistical program>)

이렇게 급속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대세계 수출비중도 1990년의 1.8%에서 2008년에는 8.9%로 크게 확대된 반면, 독일은 12.2%에서 9.1%로 감소하였다. 제2의 수출 및 경제대국 일본은 같은 기간에 수출이 2.7배 증가함으로써 대세계 수출비중도 8.3%에서 4.9%로 대폭 축소하였고 한국은 같은 기간에 6.2배의 수출증가를 달성함으로써 대세계 수출비중은 1.9%에서 2.6%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중일 2개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1990년의 4,146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6,328억 달러로 64배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3국의 수출비중은 12.0%에서 16.3%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이 중심이 되었던 동

<그림 5> 한중일 3국의 대세계 수출비중의 추이 (%)



자료 : WTO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 추계한 것임 (<http://www.state.wto.org/statistical program>)

아시아의 수출은 2000년대 중국의 주도하에 세계의 수출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20여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대세계 수출비중은 NAFTA나 EU를 크게 능가하여 세계 제1의 수출지역으로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는 세계 3대 경제권의 대세계 수출비중을 계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EU는 관찰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990년도에 세계 수출총액의 48.9%를 차지하고 있던 EU의 대세계 수출비중은 2008년의 4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저하됐다. NAFTA는 1990년의 16.3% 수준에서 2000년 19.0%로 미증한 후 2008년 12.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지역의 대세계 수출비중은 1990년의 23.0%에서 2008년 29.2%까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같은 아시아지역의 대세계 수출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은 1990년대 전반에 9%전후의 대세계 수출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4.9%대로 크게 위축되었다. 한국은 관찰기간 중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여 1.9%에서 2.6%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가속적 양상을 보이면서 1990년 1.8%에 불과했던 대세계 수출비중이 2008년에는 8.9%에 달하고 있다. 관찰기간 중 중국은 대세계 수출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한 셈이 된다. 세계 각국 및 지역이 모두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유일하게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수년간 세계 무역의 신장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견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Ⅲ. 域内貿易의 擴大와 生産誘發效果

1. 域内 貿易의 擴大

<표 2>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특정국가 및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을 행렬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우선 중국은 1990년과 2007년 사이 아시아에 대한 수출비중이 67.7%에서 40.8%로 대폭 감소한 반면, 유럽과 북미, 기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서는 한국과의 수출비중은 증가한 반면 일본과는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수출에 있어서 중국은 탈아시아적 경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한편 홍콩은 같은 시점에서 대아시아 수출비중이 42%에서 64%로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 기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홍콩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비중이 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 대부분이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 대외지향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의 수입을 일본과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역수지의 적자구조가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제품에 대한 개인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더구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내수부양책을 추진하면서 해외로부터 상당량의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20년 이상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5~7%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출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 내구소비재의 소비증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만은 1990년의 38%에서 2007년 64%로 거의 배증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대에서 25%대로 급증하였다. 한국도 같은 시점에 34%에서 51%로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비중은 3%대에서 25%대로 증가했다. 일본도 같은 시점에 대아시아 수출비중이 26%에서 42%로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비중은 2%에서 2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종래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의존적 수출구조에서 탈피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 수출 중심으로 무역상대국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은 동북아지역 국가간 무역수지를 행렬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먼저 일본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대만, 홍콩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확대시켜 왔고, 중국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2007년에는 9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958억 달러의 95%에 해당하는 규

<표 2> 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별 수출구성비의 행렬표 (%)

구분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1990	2007	중국		한국		일본		1990	2007	1990	2007	1990	2007
			1990	2007	1990	2007	1990	2007						
중국	67.7	40.8			3.7	4.6	14.7	8.3	14.7	23.5	10.0	22.9	7.6	12.8
홍콩	42.3	64.0	24.7	47.4	2.3	2.4	5.7	4.9	20.3	14.3	27.2	14.2	10.2	7.5
대만	38.2	64.8	3.4	25.3	1.8	3.2	12.4	6.5	18.2	7.0	36.0	13.8	7.6	14.4
한국	34.0	51.4	3.4	25.8			18.6	6.9	15.5	16.1	33.4	17.5	17.1	15.0
일본	26.1	42.8	2.1	15.6	6.1	7.7			23.0	16.8	36.3	24.9	14.6	15.5
인도네시아	64.3	60.8	3.2	8.8	5.3	6.6	42.5	18.6	12.8	13.3	13.9	12.5	9.0	13.4
말레이시아	58.0	57.1	2.1	8.6	4.6	3.9	15.3	9.0	16.6	13.5	18.1	17.3	7.3	12.1
필리핀	34.8	68.5	0.8	29.5	2.8	2.5	19.8	11.8	18.8	10.5	40.2	14.8	6.2	6.2
싱가포르	47.1	64.7	1.5	9.7	2.2	3.5	8.7	4.8	17.2	11.3	25.3	14.5	10.4	9.5
태국	37.8	54.1	1.2	9.7	0.0	0.0	17.2	11.9	25.3	15.5	25.3	14.5	11.6	15.9
베트남	39.1	36.8	7.7	6.3	0.0	0.0	13.4	11.4	48.1	23.1	0.6	25.0	12.2	15.1

자료 :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8*, Manila 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임.

<표 3> 동북아역내 국가별 무역수지의 행렬표 (100만 달러)

국가	연도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	역내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일본	1990		4,819	7,093	8,392	-5,924	14,380	51,614
	1995		14,204	15,828	17,184	-13,988	33,228	106,984
	2000		10,237	21,735	15,992	-11,298	36,666	98,784
	2007		28,088	30,003	24,472	8,548	91,111	95,830
한국	1990	-4,819		36	1,872	-1,684	-4,595	-9,389
	1995	-14,204		1,316	7,842	1,791	-3,255	-10,052
	2000	-10,237		4,025	6,882	7,162	7,832	11,776
	2007	-28,088		5,233	11,664	26,432	15,241	14,775
대만	1990	-7,093	-36		5,094	1,939	-96	12,498
	1995	-15,828	-1,316		21,486	1,686	6,028	8,108
	2000	-21,735	-4,025		30,378	-1,838	2,780	11,218
	2007	-30,003	-5,233		36,155	34,401	35,320	27,425
홍콩	1990	-8,392	-1,872	-5,094		-9,981	-25,339	-346
	1995	-17,184	-7,842	-21,486		-11,876	-58,388	-19,219
	2000	-15,992	-6,882	-30,378		25,224	-28,028	-11,079
	2007	-24,472	-11,664	-36,155		-45,464	-117,755	-88,705
중국	1990	5,924	1,684	-1,939	9,981		15,650	7,459
	1995	13,988	-1,791	-1,686	11,876		22,387	16,606
	2000	11,298	-7,162	1,838	-25,224		-19,250	24,033
	2007	-8,548	-26,432	-34,401	45,464		-23,917	266,385

자료 : 역내비중은 각국의 대세계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동북아지역내의 수출비율을 나타냄.

자료 : 대만의 국별 무역액은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Taipei, various issues. 그 외의 국별 무역액은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various issues 에 의거 집계한 것임.

모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적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7년에만도 2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만과 홍콩,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모두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도 대만, 홍콩, 중국에서의 무역흑자는 433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상쇄하고 152억 달러의 역내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대세계 무역흑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을 무대로 무역흑자를 창출하고 대일본 무역적자를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도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홍콩과 중국에 대해서는 흑자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2007년도 대만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대한국 무역적자도 5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홍콩과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큰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합계 7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적자 352억 달러를 상쇄하고도 역내무역에서 353억 달러의 흑자를 계정함으로써 대세계 무역수지의 흑자 274억 달러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홍콩은 역내에 대해서는 물론 대세계 무역에서도 무역적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2007년에 한중일 대만 등 4개국과의 무역에서 1,1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세계 무역수지는 8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홍콩이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수입이 자유롭다는 것과 수출상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한일과 대만에 대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홍콩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홍콩으로부터 대량의 부품과 자본재 등 생산재를 수입하여 가공 조립한 최종재를 일본과 구미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대일본 무역수지를 2000년대 초까지 흑자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생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고도기술 자본재 및 부품 등 생산재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8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생산재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2007년도 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6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홍콩과의 무역에서는 4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의 역내무역 수지는 239억 달러의 적자를 계상한 반면, 대세계 무역수지는 2,6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이것을 가공 조립한 최종재를 북미지역과 유럽,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와 부품, 소재, 자본재 등 소위 생산재의 수입 없이는 대세계 수출의 증가가 불가능하고, 또한 최근 중국은 한국과 대만 등으로부터 생산재를 조달하지 않는 한 수출을 증가시키고 무역흑자를 창출할 수 없는 분업구조로 구축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

언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생산재 수입 없이는 수출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매년 확대되는 대일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와 부품, 원소재 등을 다량으로 수입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상품의 대세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수출의 증가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은 바로 한국이 걸어온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은 산업혁명을 시작한지 130수년을 지나는 동안 도입기술이 축적과 개량 및 개발능력을 갖추으로써 첨단기술의 신제품 개발에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생산재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일괄자급형 산업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중국 등은 산업화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더구나 선진기술의 개량이나 신기술의 개발력은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공업화를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와 중간재, 부품 및 원소재의 대부분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을 수 없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체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중급기술부문의 기술축적 및 개발능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중급기술부문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재의 공급이 일본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의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분업패턴을 고려했을 때, 결국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적 발전패턴은 역내분업유형과 국제수지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2. 輸出의 經濟的 誘發效果

이상과 같은 역내분업유형 하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수출증가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추계할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여기에 의하면, 우선 생산유발효과 (GDP 성장기여율)는 1975~1990년까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1995년 이후 일관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60% 이상의 성장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의 기여도는 절대적이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서와 같이 불황기에 있어서의 수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는 수출에 의해서 유발된 고용자수를 총고용자수로 나눈 값으로서 1975년부터 2007년까지 14~16%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만큼 실업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의 소득유발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7년도만 하더라도 총소득의 53%가 수출에 의해서 창출되고

〈표 4〉 한국수출의 경제성장 유발 기여율 (%)

연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1975	56.5	13.9	65.0	35.0
1980	-1.2	14.5	63.2	36.8
1985	16.7	15.5	65.0	35.0
1990	18.1	15.5	67.7	32.2
1995	52.4	15.8	67.3	32.7
2000	37.6	16.2	59.9	43.0
2005	69.2	14.5	57.2	46.6
2007	64.3	16.0	53.3	48.7

주 : (1) GDP 성장기여율은 GDP 성장률에 대한 수출생산유발율의 비율.

(2) 고용유발기여율은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계수를 총고용자수로 나눈 값.

(3) 소득유발기여율은 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액을 GDP 로 나눈 값.

(4) 수입유발기여율은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액을 총수입액으로 나눈 값.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분석』 각 년판에 의해서 작성.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더구나 수입유발효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수입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요산업에서 첨단 기술 분야로의 특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것이 자본재나 중간재, 부품 등 생산재의 대일본 수입을 크게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한국의 수출이 국민경제의 각 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유발효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수출에 있으며, 국민소득의 유발기여율도 50%를 넘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은 경제성장, 소득분배, 고용창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대부분이 한국과 같이 수출에 의한 경제효과를 내부화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표 5>는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2005년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특정 국가에서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때, 무역상대국의 생산에 얼마만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추계한 것이다. 최종수요의 재화가 많은 중간재를 사용하여 만들어 진 것이라면 그 재화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당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무역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생산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추계된 유발계수의 값은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 계수의 추계치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중국에 주목해 보자. 중국은 1990년의 생산유발계수가 일본 0.036, 미국 0.029, NIEs 0.016, ASEAN 0.008을 보이고 있다. 역내 총유발계수 0.089에 대한

<표 5> 동아시아국가의 생산유발계수의 추이

국가	연도	일본	미국	NIEs3	중국	ASEAN4	합계
중국	1990	0.036	0.029	0.016	—	0.008	0.089
	1995	0.063	0.034	0.036	—	0.012	0.145
	2000	0.050	0.029	0.062	—	0.017	0.158
	2005	0.048	0.028	0.066	—	0.018	0.161
대만	1990	0.146	0.102	0.021	0.001	0.019	0.288
	1995	0.154	0.098	0.034	0.018	0.032	0.336
	2000	0.157	0.111	0.052	0.033	0.045	0.398
	2005	0.175	0.130	0.072	0.073	0.053	0.503
한국	1990	0.107	0.087	0.012	0.001	0.019	0.225
	1995	0.094	0.080	0.012	0.026	0.018	0.230
	2000	0.075	0.068	0.018	0.036	0.027	0.223
	2005	0.069	0.066	0.018	0.064	0.027	0.244
일본	1990	—	0.028	0.013	0.008	0.012	0.061
	1995	—	0.024	0.012	0.014	0.011	0.060
	2000	—	0.024	0.015	0.022	0.015	0.077
	2005	—	0.028	0.019	0.046	0.018	0.111

자료 : Mori, T. and Sasaki, H. (2007). "Interdependence of Production and Income in Asia-Pacific Economies: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pproach",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 07-E-26*, November 2007.

주 : 각 년의 아시아 산업연관표 (2005년은 연장표) 를 사용하여 각국 (지역) 의 최종수요 증가가 외국 (지역) 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한 것.

일본의 유발계수 비율은 무려 40%에 달하여 당시 중국은 일본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중국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 국내의 생산유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1995년에 0.063으로 증가 함으로서 역내 총유발계수 0.145에 대하여 43%까지의 비중을 증가시켜 왔다.

2005년까지 중국의 무역상대국 및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의 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 및 미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NIEs 나 ASEAN4의 지속적 증가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결국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와 수출 등을 포함한 최종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화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중간재와 부품 등 생산재의 수입선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포함한 NIEs 와 ASEAN 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중국의 역내 생산유발계수의 지속적 증가가 NIEs 와 ASEAN 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전 기간을 통하여 일본과 미국, NIEs, 중국, ASEAN 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 대한 유발계수의

절대 값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합계 값에 대한 일본의 유발계수 비중은 1990년의 51%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5%로 저하했다. 미국에 대한 유발계수 비중도 같은 시점에서 35%에서 26%로 감소했다. 그러나 2개국에서 유발된 계수의 비중은 1990년의 86%에서 2005년 61%로 크게 감소했으나, 대만에 있어서의 미일 의존체제가 얼마나 강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만은 내수와 수출 등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중간재 등 생산재 수입의 대부분을 미일 양국에 의존함으로써 상당한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5년 이후 중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결국 대만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경제에 기능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도 대만과 유사한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내 생산유발계수의 합계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NIEs, 중국, ASEAN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의 절대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2개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의 역내 총유발계수에 대한 비율은 1990년의 86%에서 2005년 5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수출증가와 내수증대에 따른 자본재와 중간재 등 생산재 수입의 대부분을 일본과 미국에 의존 함으로서 양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2005년도의 계수를 보면, 일본, 미국, 중국이 0.065 전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동안 미일에 편중되었던 생산재, 특히 중간재와 부품, 원소재 등의 조달을 미일 양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중국 내부에서의 중간재 등 제품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상당부분이 중간재와 부품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한국기업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 및 중간재는 결과적으로 일본계 기업이나 미국계 기업이거나 또는 한국계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수입하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의 타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의 절대 값은 그다지 크지 않다. 역내 생산유발계수의 합계치는 1990년의 0.061에서 2005년에는 0.111로 거의 배증했으나, 그 절대 값은 타국에 비하여 매우 작다. 전 기간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유발계수는 가장 높은 0.028~0.0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유발계수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역내 유발계수 합계의 41%에 해당하는 0.046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NIEs나 ASEAN에 대한 유발계수는 각각 0.012~0.019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등 생산재의 수입을 일정한 수준 유지하고 있는 반면, 1995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중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 왔고, 그 대부분이 중간재나 부품, 원소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에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일본계 자회사로부터 일본의 본사는 역수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상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시아 국가의 최종수요 증가의 생산유발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중국, 대만 등 3개국은 최종수요의 증가에 따른 생산재의 공급이 국내 연관산업의 미발달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미충족적 가공조립체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미일 양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국의 최종수요 증가가 양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일괄자급형 생산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역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자국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무역상대국의 생산유발효과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IV. 韓日中 3國의 分業構造

1. 韓國의 對日本 및 對中國 分業構造

한국의 대일본 및 대중국의 분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SITC 한자리 수 분류에 의한 수출입 구성비를 추계하여 작성한 것이 <표 6>과 <표 7>이다. 먼저 대일본 수출입 구성비를 나타낸 <표 6>에 의하면, 관찰기간 중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수송기기 (SITC 7)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비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SITC 0~4까지의 1차산품으로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학제품 (SITC 5) 과 재료별 제품 (SITC 6) 의 수출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구성비를 보면 기계류 (SITC 7) 는 대폭적으로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 (SITC 5) 과 재료별 제품 (SITC 6) 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한국의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등의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이 부문제품의 대일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수입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화학제품과 재료별 제품은 대부분 소재 및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부문으로서 한국의 산업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중간재 및 원소재의 대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성비를 계산한 <표 7>에 의하면, 수출에서는 기계류 (SITC 7) 와 기타 제품 (SITC 8) 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 (SITC

<표 6>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구성비

구분	수 출			수 입		
	2000	2004	2008	2000	2004	2008
SITC 0~4	27.6	23.8	21.1	4.4	5.4	6.7
SITC 5	5.6	8.1	11.3	13.6	14.7	19.1
SITC 6	13.9	17.4	22.3	15.7	18.2	24.6
SITC 7	40.9	41.5	35.8	54.4	48.3	40.5
SITC 8	12.0	9.3	9.5	11.9	13.4	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SITC 0~4는 1차산품, SITC 5는 화학제품, SITC 6은 재료별 제품, SITC 7은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수송기기, SITC 8은 기타 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 data base 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임.

<표 7>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성비 (%)

구분	수 출			수 입		
	2000	2004	2008	2000	2004	2008
SITC 0~4	13.8	7.8	11.8	26.0	16.2	10.8
SITC 5	22.3	18.4	19.0	6.5	6.0	6.8
SITC 6	28.6	17.3	11.3	22.6	24.8	32.6
SITC 7	30.5	48.7	42.6	30.0	37.2	37.8
SITC 8	4.9	7.8	15.3	14.9	15.8	1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산업분류는 <표 6>의 각주와 같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 data base 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임.

5) 과 재료별 제품 (SITC 6)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이고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화학제품과 재료별 제품 분야의 산업에서 수입대체가 활발히 이루어 짐으로서 자급체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산업부문에서는 중국의 수출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으로부터 자본재와 중간재, 기계부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제품 부문에서는 중국의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고부가가치 내수용 제품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수입측면에서 보면, 1차 산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재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료별 제품의 대중국 수출비중의 대폭적인 감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계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국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비중은 대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이 부문의 수입대체가 상당히 진행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되고 따라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차산품과 기타제품부문의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부문 수입액의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 중국 수입액의 대폭적인 증가로 그 비중은 감소하게 된 것이다. 특히 1차산품은 한국의 농산물 수요의 크기 및 잡제품 수요의 크기가 총수입액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계류 (SITC 7) 라는 점이다. 기계류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국에서 공히 40% 전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류의 수출입 비중이 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계산업 부문에서의 산업내분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업의 유형에는 이중 산업간에 이루어지는 산업간분업과 동종 산업간에 이루어지는 산업내분업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산업간 분업은 1차산업 상품과 2차산업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관계로서 선후진국간의 무역유형에 속하며, 기술적으로도 저급기술부문과 고급기술부문간의 무역으로 특징 지워진다. 반면 산업내 분업은 동종 산업내의 분업으로서 다양한 부품과 반제품, 또는 완성품에서도 제품차별화 및 공정차별화 등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입을 특징으로 하며,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분업관계라서 대부분 선진국 간 무역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에서 기계류부문의 수출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빠르게 향상되면서 바람직한 수평분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은 무역규모가 가장 큰 기계 및 전기전자부문의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서 무역특화지수는 동일품목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에 당해 품목의 수출입액 합계로 나눈 것으로서 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특정 상품이 수출만 있고 수입은 전무 하다면 무역특화지수는 플러스 1을 나타내며, 반대로 수출이 전무하고 수입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플러스의 값을 가진 경우에는 수출특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 경우에는 수입특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표 8>에 주목해 보자. 우선 대일본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수송기계 (SITC 78) 와 기타 수송기기 (SITC 79) 를 제외하면 모든 제품부문에서 특화지수는 높은 마이너스의 값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2000년과 2008년의 양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원동기류 (SITC 71) 는 -0.70에서 -0.53으로, 산업용 기계 (SITC 72) 는 -0.85에서 -0.74로, 공작기계 (SITC 73) 는 -0.87에서 -0.65로, 일반기계 (SITC 74) 는 -0.67에서 -0.42로, 전기전자기기 (SITC 77) 는 -0.38에서 -0.29로 모두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류산업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부분을 일본제품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 수치

<표 8> 한국의 대일 및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추이

SITC Code No.	대일본			대중국		
	2000	2004	2008	2000	2004	2008
71	-0.70	-0.63	-0.53	-0.19	0.06	0.28
72	-0.85	-0.81	-0.74	0.93	0.90	0.66
73	-0.87	-0.80	-0.65	0.76	0.90	0.56
74	-0.67	-0.57	-0.42	0.62	0.90	0.96
75	0.42	0.33	-0.14	-0.04	0.41	-0.12
76	-0.25	-0.19	0.03	0.15	0.44	0.34
77	-0.38	-0.38	-0.29	0.15	0.12	0.01
78	-0.55	-0.49	-0.59	0.46	0.88	0.51
79	0.29	-0.94	-0.81	-0.30	0.75	0.04
합계	-0.35	-0.42	-0.42	0.20	0.40	0.18

주 : SITC 71 원동기류, SITC 72 산업용 기계, SITC 73 공작기계, SITC 74 일반기계, SITC 75 사무용기기, SITC 76 통신기기, SITC 77 전기기계, SITC 78 수송기기, SITC 79 기타 수송기기.
자료 : 한국무역협회 data base 를 이용 추계

의 크기는 대일본 무역 총액에서 차지한 순수출의 비율로서 가령 SITC 72인 산업용 기계인 경우는 무역특화지수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동 상품의 총무역액에 대하여 74%에 해당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사무용 기기와 통신기기 등은 관찰기간 동안 수출특화 상태에서 수입특화 상태로 전환되거나 수출입이 거의 일치하여 지수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송기기에서도 수입특화지수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산업부문에서 신기술의 신모델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중간재 등의 수입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송기계에서는 승용차부문에서 수입차와 대항하기 위하여 대형 승용차 생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자동차 첨단부품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무용기기 및 통신기기의 고성능 다기능화 제품 생산의 강화에 힘입어 첨단 전자부품의 수입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무역특화지수의 마이너스 값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2000~2004년間に 큰 폭으로 플러스의 값이 증가하면서 모든 기계류부문에서 수출특화의 상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2004~2008년간에는 지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사무용 기기 (SITC 75), 전기기기 (SITC 77), 기타제품 (SITC 79) 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수출특화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무용 기기, 전기기기, 기타제품 부문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

면서 무역특화지수는 제로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이 산업에서 양국 간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기계 산업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무역특화지수가 증가했고 더구나 2008년에는 0.96으로 치솟았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 등 산업기계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상당부분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수가 0.96이라는 것은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제로에 가깝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무역특지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동북아 3개국의 분업패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와 중간재 및 부품 등 생산재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최종재를 수출함으로써 거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생산재를 이용한 제품의 대세계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한 차원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중간재 등 생산재를 수입하여 만든 최종재를 미국과 일본 및 구미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대한 무역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 生産工程別 分業構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한국의 공업화와 수출 확대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생산재 수입이 불가피하고, 또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저렴한 생산재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일본은 한국으로의 생산재의 수출확대가 없이는 내수부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 없이는 내수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3국간의 국제분업을 생산공정별 및 기술수준별로 분석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표 10>은 한중일 3국간의 생산공정별 무역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먼저 1996년과 2006년의 양시점간에 주목해 보면, 한중무역관계에서 자본재부문에서의 흑자규모는 약 12배 증가했다. 또 중간재부문에서의 무역흑자는 2.9배 증가한 반면, 소비재부문에서의 무역수지는 약간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서는 양시점간에 흑자규모가 6.4배 증가한 23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에 거의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을 보면, 자본재와 중간재부문에서는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부문에서는 1996년의 149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18억 달러로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본재부문의 수입대체가 비교적 원만하게

〈표 9〉 한중일 3개국의 생산공정별 제조업부문의 무역수지 (100만 달러)

구분	한국.중국		한국.일본		일본.중국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자본재	1,485	17,516	-14,933	-11,821	5,890	8,756
중간재	3,156	9,114	-5,120	-14,360	3,452	12,733
소비재	211	-1,411	2,578	830	-19,054	-40,713
합계	3,689	23,760	-17,667	-26,460	-12,042	-15,831

자료: 안형도·방호균, “한중일 3개국의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7 No. 46, 2007. 10. 29의 <표 4>를 인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간재부문에서는 양 시점 간에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2.8배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에 대응하여 일본으로부터 첨단부품 및 중간재를 다량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소비재부문에서는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소비재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간의 무역관계를 보면,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자본재와 중간재부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재의 대량 수입으로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재 수입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간재는 한국과 일본에 거의 비슷한 의존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약하면 동북아 3국간의 생산공정별 무역수지로 분업구조를 분석해 보면, 생산재의 조달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에, 또 중국은 한국에 크게 의존하는 분업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의 산업이 선두에서 달리고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의 산업들이 그 뒤를 이어 달린다는 소위 “기러기행렬식 발전모형”이 관찰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무역의 중복성 분석과 ¹¹⁾ 상품의 유사성 분석을 통하여 공정간 분업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의 분업패턴은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HS6단위 상품분류로 제조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한·일간에는 1996년 산업간 무역 비중이 66.3%로 산업내 무역 비중 33.7%를 크게 웃돌고 있었으나 2006에는 전자가 48.6% 후자가 51.4%로 역전됨으로써 산업내 무역이 중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내 무역 중에서도 수평적 분업비중이 4.4%에서 14.4%로 10%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중간에도 산업내 무역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한·일간과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업간 무역 비중은 1996년 64.0%에서 2006년 52.5%로 감소하였고, 산업내 무역비중은 36.0%에서 47.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산업내 무역 중에서도 수평적 분업관계는 양 시점 간에 3.7%에서 6.5%로 미증한 반면, 수직적

분업관계는 32.4%에서 41.0%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중간에는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는 한편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어 양국 간의 기술격차가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중간에도 한중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산업간 무역비중은 1996년 67.0%에서 2006년 57.1%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산업내 무역비중은 같은 시점에서 33.0%에서 42.9%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내 무역에서 수평적 분업관계의 비중은 3.8%에서 5.9%로 미증한 반면, 수직적 분업비중은 29.2%에서 37.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분업구조에서는 한·일간 및 한·중간에 비하여 산업간 무역이 지배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양국 간 기술격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평분업관계의 확대는 가공도가 높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상품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기술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분업관계의 심화 확대는 그만큼 기술격차가 현존하거나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생산공정별 분업구조를 보면,¹²⁾ 우선 한일간에는 소비재와 자본재 부문에서 산업내 분업이 활발한 반면, 중간재 부문에서는 산업간 무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의 분업구조는 자본재와 소비재 부문에서 수평적 분업관계의 확대, 중간재 부문에서 수직적 분업구조의 확대로 특징지어 지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재 생산에 특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일 간의 분업구조에서 일본은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중간기술의 자본재와 소비재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간 산업내 무역의 분업구조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 전 부문에 걸쳐 수직적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간재 부문에서 수평적 분업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이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중일 3국간의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결정에는 3국간의 기술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技術水準別 分業構造의 特徵

한중일 3개국은 전형적으로 기러기행렬식 (안행적) 산업특화와 국제분업의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정을 통하여 고기술산업부문에 생산특화하고, 자본재와 원소재 및 부품등 생산재를 한국과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으로부터는 최종소비재를 수입하는 분업형태를 장기간 지속해 왔다.¹³⁾

또 한국은 중간기술제품산업에 특화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생산재로 가공한 반제품과 최종제품을 미일 양국과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분업형태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저기술제품 산업의 생산에 특화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본재와 한국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중간재를 가공 조립한 최종재를 일본과 한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수출하는 분업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는 항상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대중국 무역흑자로 대일 무역적자를 상당부분 보전하는 한편,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대일본 무역흑자로 보전하는 형태를 유지. 결국 한중일 3개국은 기술수준과 산업발전 단계를 각각 반영한 소위 안행형 국제분업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연구 조사된 보고서를 이용하여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기술수준별 산업분류로는 고위기술산업, 중고위 기술산업, 중저위 기술산업, 저위 기술산업으로 분류되며, 각 기술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이 포함된다. 즉 고위기술산업에는 우주·항공, 의약,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가 포함된다. 중고위 기술산업에는 화학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저위 기술산업에는 석유 및 석탄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비철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선반, 전기기계가 포함된다. 그리고 저위 기술산업에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 및 지류, 가구, 인쇄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과 2007년의 양시점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술수준별 무역수지는 고위기술 및 중고위 기술제품 부문에서 무역수지의 흑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저위 기술제품은 적자폭이 확대되고, 저위 기술제품은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중저위 기술제품의 적자폭은 126억 달러에서 405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고위기술제품은 적자폭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부문에서는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위기술제품의 경우 양기간에 22억달러 적자에서 1,183억달러 흑자로 반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위기술제품에서의 흑자 규모는 감소한 반면, 중고위기술제품과 고위기술제품은 흑자가 확대되었다. 특히 중고위기술제품의 경우 1,583억 달러에서 2,555억 달러 흑자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중일 3국간의 기술수준별 교역을 보면 고위기술제품 및 중고위기술제품 분야의 역내무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제품분야의 역내무역액은 2000년 51.0%에서 2008년 1~4월 61.3%로 크게 증가되었다. 한국의 대일 기술수준별 무역을 보면, 대일 무역적자의 중심은 중고위기술제품에 있으며, 중고위기술제품 분야의 무역적자는 2000년 118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94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기술수준별 교역은 중저위, 저위기술제품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저위와 저위기술제품에서는 2000년도 22억 달러 흑자에서 2007년 103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는 이 분야에서의 중국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중고위기술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제품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위 및 중고위기술제품 분야에서의 역내무역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3국의 상호보완적

<표 10> 한중일 산업내 분업도지수 추이

연도	제조업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석유화학	잡제품
1992	11.9	11.47	22.37	4.52	9.39	7.37	2.3	17.56
1993	13.05	8.52	29.20	0.53	6.99	10.42	3.3	19.93
1994	18.49	18.43	35.33	3.26	7.41	12.54	5.22	25.40
1995	19.36	19.12	47.72	2.02	6.74	12.75	6.63	23.89
1996	20.74	17.32	56.07	2.93	9.10	13.26	5.26	21.09
1997	19.86	12.63	55.78	6.78	13.13	14.73	5.94	15.32
1998	18.37	7.58	44.90	2.24	10.04	16.73	2.63	16.34
1999	23.4	12.78	46.51	8.63	15.15	16.66	3.17	21.27
2000	26.02	12.77	52.53	14.73	15.48	15.91	3.40	22.15
2001	28.07	12.64	54.94	7.04	19.93	15.70	3.27	24.78
2002	27.90	15.00	45.22	7.42	18.47	18.68	3.76	25.01
2003	28.11	12.92	45.39	4.34	16.75	18.67	3.36	25.94
2004	28.73	20.95	47.00	4.85	18.74	19.03	3.13	23.73
2005	29.96	22.43	48.96	8.06	26.28	22.86	4.01	21.58
2006	34.15	22.06	55.37	16.33	32.33	22.81	7.73	24.85

자료 : 한국무역협회 DB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산업 및 분업구조를 감안하고 EU 역내무역 비중과 비교했을 때, 3국간의 역내무역비 중의 증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를 분석해 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술수준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산업에서의 산업내분업도 지수가 매우 높거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3국간의 기술수준의 차이가 축소됨으로써 동일 산업 내에서의 수평적이고 선진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활성화되면서 3국간의 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V. 韓日中 3國의 戰略的 通商協力方案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 가능성과 방향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중일 3국 사이에는 매우 활발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분업 관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상호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에는 이미 검토했던 바와 같이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까지도 상호 현격한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기러기

행렬식” 분업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수평적 경쟁체제도 구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간에는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부문에서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부 전자산업과 섬유산업부문에서 수평적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철강산업과 조선산업에서는 3국간 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체제는 결국 제3국 및 대세계 수출에 있어서 시장쟁탈적 경쟁구도를 구축함으로써 출혈수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진출이 바람직한 통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둘째, 한중일 3국간에는 상당기간에 걸쳐서 “순환적 무역수지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검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각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분업유형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 등 생산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산업구조와 수출상품의 구조를 고도화 시킬 수 없는 기술체계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면 시킬수록 수출상품의 구조를 고도화 시키면 시킬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생산재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 결과 대일 무역적자를 누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한국 무역에서도 한국의 대일본 무역에서와 같은 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대중국 무역에서는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수입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대거 진출했고, 그 대부분이 중간재와 최종소비재 생산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중국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중간재와 소비재를 본사에서 수입하는 형태의 역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순환적 무역역조구조의 근본원인은 생산재무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중 3국간의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이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중일 3국은 인구규모로 보더라도 15억 명을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세계 제2의 고소득 국가이며, 한국은 IT 및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부문에서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로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으나, 연평균 10%를 증가하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확대에 힘입어 개인소득과 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시장의 확대는 3국 기업의 생산에 있어서 규모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각국이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 및 이를 지원하는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10년 초부터 발효된 중국과 ASEAN 간의 FTA 체결은 한국과 일본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안정과 무역불균형의 시정 및 국제산업협력 및 전략적 제휴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도 ASEAN+3 (한중일)의 FTA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한중일 3개국의 FTA에 대한 기본입장은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3개국이 동시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의 주요지역 및 특정국가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참여정부 이후의 주요 통상전략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는 한·ASEAN, 한·미, 한·EU간 및 한·칠레간의 FTA 추진 등 실제적 협상 및 체결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체결된 중·ASEAN FTA를 볼 때, 중국도 한국과 유사한 기본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은 대 ASEAN FTA에 있어서도 개별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등 2국간 FTA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는 다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한중일 3국간에는 경제적, 기술적 문제 외에도 역사왜곡이나 영토 등 비경제적 요인이 뿌리 깊게 내재해 있어서 3국 동시다발적이고 전면적인 FTA 체결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한중 및 한일, 중일 등 2국간 FTA를 체결하되, 농산물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부문 등 민감부문에 대해서는 전면적 시장개방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 관세인하 조치 등 낮은 단계의 FTA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동북아시아 3개국의 분업형태는 국가 간 기술격차의 축소에 따라 수평적이고 선진적인 산업내무역이 중심을 이룰 것이며, 더구나 분업의 중심은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개국의 기술수준은 1990년 초에 비하여 2005년간에 크게 축소되어 왔다. 2005년도 시점에서 제조업 부문별 기술수준을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에서는 한국이 74~78 정도인 반면, 중국은 55 전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디지털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등에서는 한국이 94~84 수준인 반면, 중국은 74~68 정도의 수준이다. 제조업의 평균적 제조기술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한국은 90~95% 수준인 반면, 중국은 한국의 70~80% 수준까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적어도 1992년 초에 비하여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즉, 한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기술수준이 상대국에 비하여 적어도 15~20% 정도로 캐치 업 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¹⁶⁾

이같이 3개국 간 기술격차의 급속한 축소를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쟁체계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서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또 중국과는 노동집약적이고 중위의 기술제품부문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과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장기간 상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중일 3국간 FTA를 체결하여 국제산업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통신기

계 등의 분야에서는 가격경쟁력이 강하고,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섬유를 포함한 제조업부문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중위 수준에 있다. 또 품질이나 기능, 제조 가공기술,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 비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일본의 80~90%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중저급 기술제품 분야에서의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 고기술제품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국제품의 수출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3국의 제조업부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장주도산업에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R&D 비율의 대폭적 증가에 의해서 제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차세대 신소재의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디자인, 유통 등 제조업의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식기반 서비스부문을 확충함과 동시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면서 3국간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注

- 1)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金昌男 (1999),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회생” 사회과학논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6집, 12월.
- 2) 동아시아 국가가 채택해 온 개발전략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폴 쿠루그먼이 지적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MF 구제금융 조건하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구조개혁 방향의 오류와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aul Krugman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A Cautionary Fable, *Foreign Affairs*, November; Joseph E. Stiglitz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 W. Norton & Company, Inc.; Robert Wade (2004), *Governing the Market :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한국의 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金昌男 (2002), “再び上昇局面に向かう韓国経済—その構造改革の成果と現状—”, AJEC REPORT, Vol. 29, 北陸環日本海経済交流促進協会, 7월호를 참조.
- 3) 이홍배 (2005), “한중일 3국간 산업별 무역연관효과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Vol. 17, No. 1을 참조.
- 4)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나, 특히 최근의 흥미로운 분석으로는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을 참조.
- 5) World Bank (2009),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World Bank, Washington, DC. 대만의 자료는 Asian Development Bank (2008), *Key Indicators for Asia and Pacific 2008*, Manila 를 이용하여 집계한 것임.
- 6) 이와 관련해서는 金昌男 외 (1998),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도서출판 삶과 꿈, 제 1장을 참조.
- 7) UNCTAD 의 Database 를 이용하여 추계 (<http://stats.unctad.org/FDI>, 2009/08/14).
- 8)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2008), 中國統計年鑑, 北京을 참조.

- 9) 구체적인 추계방식과 자료 설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Mori, T. and Sasaki, H. (2007), "Interdependence of Production and Income in Asia-Pacific Economies: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pproach,"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 07-E-26*, November.
- 10) 이와 관련해서는 김창남 · 와파나베 토시오 (2000), 현대한국경제발전론, 유평출판사, 제7장을 참조.
- 11) 이하에서의 논의는 안형도 · 방호경, "한중일 3국의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46호 (2007년 10월 29일) 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12) 안동형 · 방호경 (2007), 전계논문, pp.15~16 참조.
- 13) 이하에서의 논의는 金昌男 (2007), "韓国製造業部門の國際競争力の源泉：技術革新と規模効果," 世界經濟評論 (世界經濟研究協會：東京), Vol.51 No.4, 4월호 참조.
- 14) 박필재 (2008), 한중일 3국의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8월 참조.
- 15) 한중간 경쟁체제와 중국내에서의 한일기업제휴 사례에 관해서는 金昌男 (2009), "韓国の經濟成長と韓中經濟連携の進展" 坂田幹男編, 中国經濟成長と東アジアの發展, ミネルヴァ書店 (京都) 을 참조.
- 16) 이와 관련해서는 金昌男 (2007), 전계논문을 참조.

參考文獻

- 김창남 외 (1998),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도서출판 삶과 꿈,
- 김창남 (1999),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희생" 사회과학논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6집, 12월.
- 김창남 · 와파나베 토시오 (2000), 현대한국경제발전론, 유평출판사.
- 金昌男 (2002), "再び上昇局面に向かう韓国經濟—その構造改革の成果と現状—", AJEC REPORT, Vol. 29, 北陸環日本海經濟交流促進協議會, 7月号.
- 金昌男 (2007), "韓国製造業部門の國際競争力の源泉：技術革新と規模効果" 世界經濟評論, 世界經濟研究協會 (東京), Vol.51 No.4, 4월호.
- 金昌男 (2009), "韓国の經濟成長と韓中經濟連携の進展", 坂田幹男編, 中国經濟の成長と東アジアの發展, ミネルヴァ書店 (京都).
- 박필재 (2008), 한중일 3국의 기술수준별 무역구조 분석, 국제무역연구원, 8월.
- 안형도 · 방호경, "한중일 3개국의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7 No.46, 2007. 10. 29.
- 이홍배 (2005), "한중일 3국간 산업별 무역연관효과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Vol. 17 No. 1.
-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2008), 中國統計年鑑, 北京.
- ADB (2008),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8*, Manila.
- Asian Development Bank (2008), *Key Indicators for Asia and Pacific 2008*, Manila.
-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Taipei, various issues.
- IMF (2008),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various issues.
- Joseph E. Stiglitz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 W. Norton & Company, Inc.
- Mori, T. and Sasaki, H. (2007), "Interdependence of Production and Income in Asia-Pacific Economies: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pproach,"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 07-E-26*, November.
- Naisbitt, J. (1996), *Megatrends Asia : Eight Asian Megatrends That Are Reshaping Our World*, Simon & Schuster, New York (홍원수 옮김, 메가트렌드 아시아, 한국경제신문사, 2006).

- Paul Krugman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A Cautionary Fable," *Foreign Affairs*, November.
- Robert Wade (2004),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World Bank (2009),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Washington, DC.